



서分離되었다. 그리고乳廓間의鐘身에는 풀어얇은合掌形의菩薩二軀와八瓣蓮花紋 撞座가交代하고 있는데彫文은鮮明하다. 下帶에接近하여二行縱書의銘文이細線陰刻되었는데 楷書

體로서字徑 1cm이다.

辛亥四月 日徒內唐冲 存彦 溫實 善肝 金厚尹文均厚近淵光必迪鈞崔

尙金好い?

世稱 元卜 夫三 小斤三十 正方寺納]

龍鈕는 隻龍으로 兩足(前足舍珠)이 잘 表現되었으며 긴 甬筒 위에는 五珠가 둘러 있다. 各部樣式과 彫紋에서 미루어 그 年代는 高麗下代로 推定되나 形態의 整齊함과 保存이 完好함에서 이것 또한 當代의 優品이다. 全北出土라고 傳한다. 서울特別市 洪性夏氏 所藏

全高一三三cm 鐘身高一五·五cm 下徑一三·三cm 厚三·三cm 上徑一〇cm 菩薩形 高七cm 撞座徑四·五cm(九月四日 調査)

(註) 既存의 辛亥銘品으로서는 至大四年辛亥二月銘鍾(在佛巴里 本誌三一七)과 東京 廻眞寺鐘(日本 夫倫寺 所藏「金石遺文」七七八) 등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此品보다도 크다.

(3) 至元銘 青銅小鐘

今年六月 忠北 報恩에서 出土되었다고 할 뿐 그 이상의 知見은 없다. 靑綠色의 녹이 全面에 덮여 있는 小品으로서 龍鈕 一部가 缺損된 以外는 保存이 完全하다. 鐘體樣式은 通型으로 別다른 特異點이 없다. 上·下帶에는 雷紋이 들렸고 鍾肩에 三角立狀 蓮紋帶가 들렸으며 四乳廓 各九乳이다. 胴體에는 乳廓 밑에 蓮花重瓣의 撞座 四座와 乳廓間地에 菩薩形 合掌

坐像 四軀가 交代하여 配置되어 있다. 甬筒은 短小하고 隻龍足部는 缺失되었다. 銘文은 下帶에 接하여 一行縱書 陰刻되었는데 字徑 一·五cm로 서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

至元卅十一年甲午五月 日造成道堂殿前近之□善万生一回□□父母  
己身福壽延長之願入重二斤二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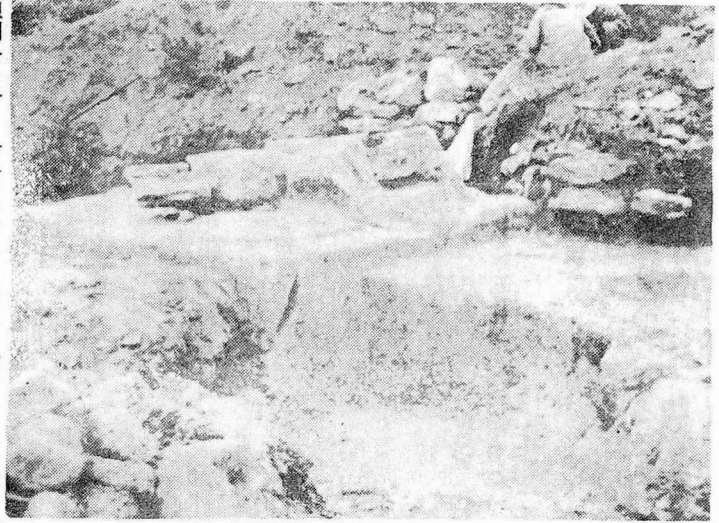
至元三十一年은 高麗 忠烈王二十年 서기 一二九四年에 해당한다. 鐘體는 下徑이 넓고 彫紋도 形式에 훌륭으며 鍾聲도 清雅하지는 못하다. 銘文이 있어 製作年代를 알 수 있으나 內容 一部의 뜻을 알 수가 없다. 今年 六月에 忠北 報恩出土라 傳하는 바 現在未詳.

高二十cm 下徑十五·三cm 上徑十一cm 厚一·四cm  
(一九六六年 七月四日 調査)

奉化 半跏思惟石像址 發掘概要

尹 容 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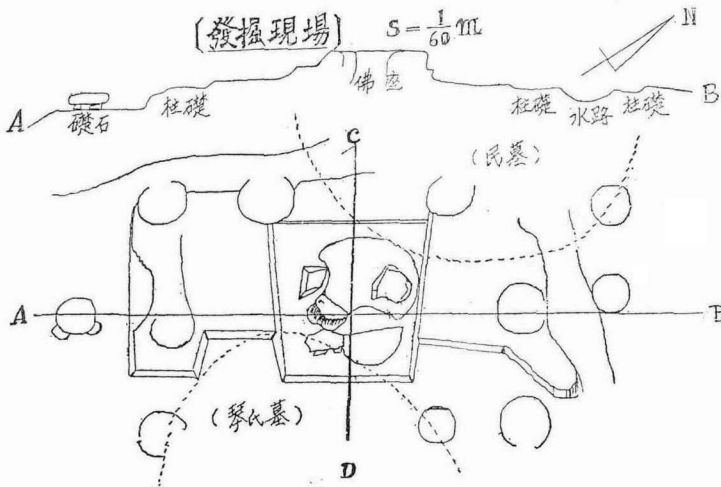
一九六五年 十一月 奉化郡 物野面 北枝里에 遺存하는 磨崖如來坐像①의 下半部를 發掘調査中 그 餘暇에 그곳 周邊의 地表調査를 한 바 있어 그때 半跏思惟石像이 發見되었다고 함은 이미 紹介되었거니와② 그後 一九六六年 一月 八日에는 이 石像을 慶北大學校에 移置하고자 現場에서 作業途中 思惟半跏石像에 使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蓮花文足臺를 隣近에서 拾得한 바 있었다③. 이와 같은 部分的 發見은 石像原位置의 遺構 解明과 未發見의 上半身을 찾아야 하겠다는 課題를 더욱 재촉하던 中慶北大學校 博物館에서 一九六六年 六月二十八일부터 一週日間 石像發見地點을 發掘 調査하게 되었던 것이다. 發掘地域은 石像이 顛倒되어 있었던地點에서 北便으로 民墓 一基가 上下로 자리잡고 있는 그 中間空地이다. 兩墓間의 間隙이 좁아서 自然 發掘面積도 幅넓은 全面發掘이 되지 못하고 部分的 調査에 그치지 않을 수 없는 艱難한 作業이 되어 버렸다. 民墓 사이를 發掘하게 된緣由는 地表上에 礎石이라 생각되었던 方形石物



이 兩民墓 사이에 夾혀 있었다는 것과 顛倒된 石像을 일으켰을 때 그 아래에서 埋沒된 岩盤에 人工이 加해진 段層이 發見되었다는 點에 있었다. 多幸이 좁은 面積에서의 發掘임에도 不拘하고 遺構의 主要部分인 佛壇이 그곳에서 發見되었고 그것을 덮고 있었던 建物址까지 알게 되어 큰 收穫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自然岩盤을 깎아서 造成한 이러한 佛壇은 아직 그

類例를 보지 못하였던 터이며 더욱이 이 佛跡은 半跏思惟石像과 더불어 우리나라 初期佛伽藍의 樣式을 究明하는데 注目될 遺構라 할 수 있었다. 石像發見當時 建物礎石이라 생각한 두 石物은 發掘한 結果 東쪽 것은 佛坐臺를 補添한 石物이었고 西쪽 것은 佛壇을 둘러 쌓은 돌담의 露出部分이었다. 遺構는 奉化川 西便을 沿하여 形成된 花崗岩塊의 한 丘陵東北쪽 山尾端에 位置하며 佛壇은 그 곳에 露出된 花崗岩盤을 利用하여 造成한 것이다. 遺構의 全體의 方向은 東南間을 向하고 있으며 그 形狀은 中央에 梯形의 佛坐基壇을 彫出하고 그 左右에는 날개처럼 兩側面에서 佛坐基壇上面보다 一段 낮게 平壇을 彫造하였다. 그리고 中央의 佛坐基壇과 左右平壇의 端部를 앞으로 突出시켜 平面圖上으로는 마치 『山』字型의 形

狀을 하고 있다. 佛壇前面은 거의 垂直에 가깝도록 깎아서 높은 壇壁面을 만들고 있으며 禮拜場의 바닥도 平平하게 鑿造하였다. 또 佛坐基壇에는 佛像을 받쳤던 佛坐臺와 半跏石像의 左垂足部를 받쳤던 足坐臺가 突出되어 있으며 佛壇境內外에는 建物의 柱礎圓孔과 礎石이 있다. 그리고 佛壇 뒷쪽과 옆둘레에는 人工 또는 自然의 排水溝가 있어서 山에서의 流水를 處理하고 있다. 遺構의 加工狀態는 佛壇右側端部만을 自然岩盤의 龜裂로 利用하여 壇境을 이루고 그 龜裂을 排水路로 한 以外는 角面段이 모두 整然하게 鑿造되어 있다. 以上 主된 遺構 外에도 露出된 遺構는 佛壇의 앞과 뒷쪽에 돌담이라 생각되는 積石列이 있었고 佛座臺側面과 그 周圍에



坐臺 自體의 風化로 因한 佛像의 顛倒를 防止코자 큰 堅質의 花崗石角材로 補添하고 있었다. 또한 柱礎圓孔 가운데는 (佛坐基壇 뒷쪽) 큰 돌을 埋入하여 기둥을 받쳤던 받침돌이 있는 데도 있었다. 佛坐臺의 補添石積石列 받침돌等 이러한 遺存物은 모두 創建後 數次의 補修 또는 改築時에 添加된 施設이라 생각되었다. 이 곳에서 採集된 多量의 瓦片類 가운데 時代를 달리 하는 것이 많이

取되는 것으로 보아도 改修等 修理가 數次에 있었다는 것을 充分히 알 수 있다.

佛壇規格은 橫으로 左側平壇端에서 右側 自然排水溝까지 六・六m를算하며 縱으로는 가장 긴 中央部突出端에서 뒷쪽 排水溝까지 三・二m를算하였다. 中央의 佛坐基壇은 앞쪽 橫長이 一・九m, 뒷쪽 橫長이 二・五m 縱長이 二・五m로서 梯形을 이루고 있으며 그 突彫高는 兩羽翼에 對한 平壇보다 一四cm가 높고 또 兩翼平壇보다 앞으로 約七〇cm나 突出하고 있었다. 佛坐基壇上에 突彫된 佛坐臺는 左側의 補添石까지 包含해서 最大 橫幅이 約二m, 縱幅이 一・一m, 高가 四〇cm였다. 佛坐臺上에 突彫한 足臺는 圓을 折半한 半圓形으로서 高는 四cm이고 直徑은 一・一m이었다.

佛壇을 덮고 있었던 佛堂은 佛壇左右에 있는 排水溝를 境界로 하여 境內는 棟三間 梁一間으로 되어 있고 境外의 柱礎까지 延長하면 二間이 더 加算되어 棟五間, 梁二間이 된다. 여기에서 排水溝를 境界로 하여 區分說明한 것은 柱礎의 配列位置와 遺構自體의 加工狀態에서 同時代의 築造物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證據로서 創建時 棟五間이었다면 建物內에다 排水溝를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며 柱礎配列에서 棟과 梁이 五間일 경우에도 直線上에 配列되어야 할 것이다. 全面的 發掘이 아니라서 確證할 길은 더 없으나 柱礎址의 配置狀態라든지 排水溝를 境界로한 遺構의 加工狀態가 内外一致하고 있지 않음은 同時代에 만들어진 遺構가 아니라 할 수 있다. 現存하는 建物址는 創建時의 것에다 後代에 改築擴張한 것이 付加存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發掘에서 遺構自體의 究明과 더불어 또한 重要な 課題라 할 수 있는 것은 半跏石像과 遺構와의 關係를 究明하는데 있다. 發見時의 石像 顛倒位置는 佛壇南側의 排水溝에 있는 礎石위였으나 原位置는 勿論 佛壇中央에 整立되어 있었음은 異議가 없다. 그 證據로서 지금 梯形 佛坐基壇上에 突彫되어 遺存하는 坐臺의 幅이 遊離된 石像下部坐臺幅과 비슷할 뿐 아니라 坐臺앞에 突彫한 半圓形足臺는 佛坐臺 앞쪽을 半圓으로 둘러싼 것과 相關하여 圓形이 되어 別個石으로 發見된 蓮花文足臺가 隱혀 지게 알맞도록 되어 있다.

이 佛壇에는 元來 三尊佛이 奉安되었는지 또는 獨尊佛로 奉安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壇上面의 面積으로 보아 반드시 獨尊佛로만 생각할 수 없는 事緣도 있기는 하나 지금으로서 는 思惟半跏石像 單獨奉安으로 보는 수 밖에 없다.

石窟寺院이 中國에 들어와서 그 構造가 多種多樣으로 發展되었음은 現存하는 檄煌雲岡 龍門 等地的 石窟을 봄으로서 充分히 理解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初期石窟構造와의 關係를 갖는 것은 龍門 賓陽洞古陽洞의 것처럼 洞窟家屋系統에 屬하는 類의 것으로 思慮된다. 그러나 中國에서와 같이 石窟寺院 造成에 適合한 岩塊를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그 樣式조차도 盛行시키지 못하고 다만 小佛龕으로 또는 前方이 開放된 岩壁에 磨崖佛로서만 造成盛行케 되었다. 이러한 事實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現存하는 石佛 가운데 初期에 屬하는 것들이 거의 全部가 小佛龕 또는 磨崖佛이란다. 여기에서 磨崖佛은 中國 奉先寺의 巨大 盧遮那佛 및 脇侍菩薩 또 敬善寺의 龕에 있는 諸佛처럼 覆堂을 設置하여 雨風을 막은 것이 많다. 例로는 奉化 北技里 磨崖如來像, 泰安磨崖三尊佛等等을 들 수 있다. 佛敎輸入後 中國의 木造伽藍과 더불어 들어온 石窟樣式은 前述한 바처럼 磨崖佛 및 佛龕으로서 盛行하였다고 보며 이로 인한 石佛造成은 처음 磨崖佛의 平板의 인 것에서 半圓形佛로 다시 圓形佛로 技術이 發展되었다고 생각하는 同時에 小佛龕은 家屋形佛龕인 佛堂으로 發展했다고 본다.

이러한 몇가지의 事由에 立脚해서 이번 發掘한 佛壇 및 半跏像의 性格을 살펴 본다면, 첫째 佛像 造成에 있어서는 獨立된 圓形佛이란 것, 둘째 覆堂 構造에서 벗어나 佛堂 構造라는 것, 셋째 佛壇造成 및 佛像 造成에서 그 技法이 아직 古式의 餘脈을 간직하고 있음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樣式은 아직 盛唐文化의 影響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며 이러한 年代는 新羅의 統一初 또는 三國의 末期로 推定된다.

(附記)

이번 發掘에서 出土된 瓦類 가운데 그 銘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天德三年勿也』 (2) 『大寺』 (3) 『金堂瓦』로서 以外에도 平瓦 및 忍冬

文의 솟막새瓦 그리고 蓮花文의 암막새瓦가 있으며 大部分은 高麗瓦이나 個中에는 平瓦가운데 古式의 것도 發見되었다.

여기에서 『大寺』라 銘記된 것은 現在도 이 近方의 佛跡을 가르켜 『한절』이라 불리워 내려오는 것과 一致하며 『勿也』는 『物野』의 同音異字地名으로 볼 수 있는 發掘地에 흐르는 河川 건너편 洞里名이 『勿谷』(말애골)으로 傳하는 것을 보아도 一致한다.

註

① 本誌 第三卷 第十二號(通卷二十九) 十七頁 參照

② 本誌 第六卷 第十二號(通卷六十五) 一頁 參照

③ 本誌 第七卷 第三號(通卷六十八) 一二頁 參照

### 銅製鬼面

洪 思 俊

八月下旬 扶餘邑內 上水道 幹線管을 埋設하기 爲하여 舊校里 現警察署 東北 五〇m이며 邑에서 구드래로 通하는 道路右側 第三電柱地點에서 地下 一·五m를 人夫가 掘下하는 途中 方形礎下에서 이번 紹介하려는 銅製鬼面이 出土된 것이다. 일찌기 日政時 警察署東部地帶를 整地하는 데서 百濟瓦當이 出土되어 當時 많은 收獲이 있었고 따라서 塔中心礎(扶博所藏)가 發見됨에서 百濟寺址로 推定한 地帶였던 바 今 番 意外에 稀貴한 銅製鬼面이 同地域에서 出土됨은 古建築研究에 一助가 되리라 고 믿어 아래에 紹介한다.

銅製鬼面이 出土한 上水道 幹線管을 埋設하기 爲한 工事地는 一五m 깊이에 百濟破瓦가 多量으로 積滯되어서 掘鑿에도 困難을 보았다는 것이며 鬼面下는 原土가 나오더라는 人夫談인데 建物이 있다가 없어진 以後 그 寺址가 攪亂되지 않았음을 알겠다.

이 銅製鬼面은 두눈이 시인스런 큰 便이고 眼球는 本是 없는 듯 透孔이 되었고 鼻部는 比較的 平平하며 左右로 퍼져 있다. 머리에는 左右로 頭髮이 두가닥 相對的으로 늘어뜨리어 있고 頰骨部에는 隆起된 筋肉이

으로 접어져 있다.

頭上幅 二〇·四cm 下顎幅 一八·三cm 面長 二二·二cm 內曲 〇·八cm

鬼面製作은 表裏型이 있어서 鑄造하였는데 表面은 細部線을 내었으나裏型은 頭髮, 眉部, 鼻部, 口部 등의 굵은 陰刻만이 있다. 鑄銅의 厚는 四—五mm이다.

이 鬼面을 보아 百濟當時 사래木面의 長廣을 짐작하게 되며 혀를 前齒間에 突出시키어서 無聲大笑를 表現한 感이 있다고 보겠다. 土製鬼面으로는 이미 窺岩里出土文樣博에서 볼 수 있었으나 金屬鬼面은 扶餘地方에서는 最初의 出土임을 알겠다.

### 考古美術 卍—ス

◎ 文化財委 第一分委 (八次)

九月 十四日 午前 十一時 文化財管理局에서 開催, 出席委員 金庠基, 李弘植, 金允基, 金斗鍾, 黃壽永, 秦弘燮, 外 文化財課長 姜學藝士,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동굴계 문쳐 있고 口部는 露齒에 혀(舌)를 前齒左側으로 突出시켰음은 鬼面으로 滿面笑顏을 나타낸 것 같다. 이 鬼面에는 兩眉上과 下齒左右에 小孔이 있음을 보아서 隅棟사래 끝木末에 使用한 것 같으며 또한 木末에 찌우기 爲해서 안쪽